

2008년 2월 28일 (목) 09:50 연합뉴스

<사람들> 울산예총 이희석 신임 회장

(울산=연합뉴스) 김용래 기자 = "책임이 무겁습니다. 울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공약했던 내용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겠습니다."

한국예총 울산시연합회 16대 회장에 당선된 이희석(44) 전 울산미술협회 회장은 28일 "울산 예총의 위상 강화와 소속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이 신임 회장은 27일 열린 16대 울산예총 회장 선거에서 김호연 울산예총 현 부회장과 겨뤄 32표를 얻어 19표차로 새 회장에 당선됐다.

이 회장은 "울산의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아내는데 주력하겠다"며 "특히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국비 지원금을 잘 파악해 창조적인 기획을 통해 문예진흥위원회나 문화관광부에서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그는 이어 "울산 예총은 40여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모아놓은 기금이 없다"며 "재임기간 중 울산예총회관 건립 기금을 1억원 이상 모으겠다"고 말했다.

또한 "1년 내내 전시장과 연습공간 부족으로 창작활동이 위축되고 있다"며 이에 대해서는 종합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.

서울대 미대를 졸업한 이 회장은 울산지역을 기반으로 설치미술가로 활동해 왔으며 울산미술협회 회장을 역임했다.

yonglae@yna.co.kr

(끝)

주소창에 '속보'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

<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+Nate/magic@/show/ez-i>

<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>